무역·환율·안보…'미중 전쟁' 전방위 확대

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 이어
미사일 아시아 배치 놓고 충돌
中 군사훈련 美 항공모함 파견
남중국해 해역 전운 고조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적으로 지정, 미·중 간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비화한 가운데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를 놓고도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후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군비 경쟁 본격화 조짐 속에 미·중 간 동북아 패권 경쟁이 불붙은 모양새이다.

동북아에서의 미·중 간 신(新) 군비 경쟁은 이 지역의 안보 지형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G2(주요 2개국)의 '전쟁'이 무역에서 안보로까지 전선을 확대하며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미 수천개의 그런 미사일을 배치해놨다"며 "그들은 INF 조약의 일원이 아니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다"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조약에서 탈퇴한 하나의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군사력을 증강하고 위협을 가한 것은 중국이다. 그것은 더 큰 논쟁의 일부분"이라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방어'를 언급했다.

중국이 미국의 아시아 지역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현실화할 경우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력히 반발한 가운데서도 중국의 위협을 이유로 미사일 배치 추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은 지난 2일 INF 조약을 탈퇴한 직후부터 새로운 군비 통제 조약에 중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해왔다.

앞서 푸총 중국 외교부 군축사 사장(국장급)은 중국시간으로 6일 "신속하게 숙고해 영토에 미국의 미사일 배치를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문간에 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국은 대응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전날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면서 사드 사태보다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에 항공모함을 보냈다고 AP통신이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도 중국과 대립해온 상황에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도 남중국해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해사국은 전날 오전부터 8일 오후까지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 군도, 베트남명 호앙사 군도) 일대에 선박의 접근을 금지하는 항해 경고를 발동했는데, 이는 이 일대의 해상 군사훈련을 위한 것이라고 SCMP는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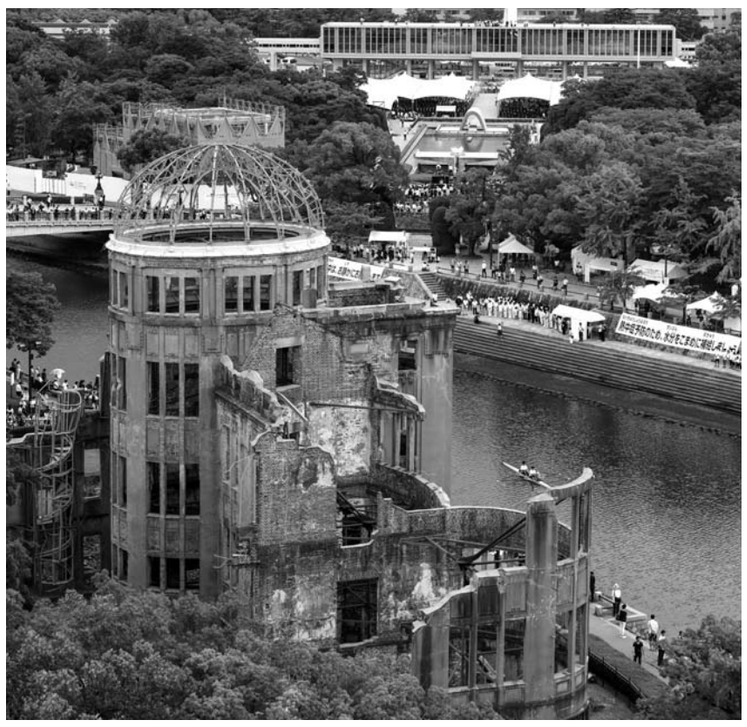
중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2019년 국방백서'에서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국방전략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면서 이를 비판적으로 다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SCMP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와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 등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적시한 것을 두고 2019년 국방백서에서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대테러 전쟁'에서 중국, 러시아 등과의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 국방백서에서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 유럽 해군과 함께 다자간 해상 훈련을 하면서 서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자산을 증강하고 재배치하고 있다"며 "미국의 국가안보 및 국방전략 변화가 강대국 사이에 경쟁을 도발하고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태평양, 인도양 지역 동맹국과 연대 강화를 통해 중국을 봉쇄하고자 하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앞서 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것을 오늘 결정했다"고 발표하자, 중국 인민은행은 성명을 내고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일방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인 행위로 국제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글로벌 경제 금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연합뉴스



원폭 투하 74주년 맞은 '히로시마 원폭 돔' 일본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인 6일 위령식이 열린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앞쪽에 위치한 원폭 돔(왼쪽) 모습. /연합뉴스

트럼프 "농가 추가지원 검토"…무역전쟁 장기화 준비

中보복카드에 서둘러 대선표밭관리 나서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미국산 농산물을 다시 보복 카드로 들고나오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농민들과 농업 대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트윗에 "지난 2년 동안 알게 됐듯, 우리 위대한 미국 농민들은 대통령이 함께 해왔으며 다른 대통령이 하지 않았던 것을 해왔다는 점에서 중국이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지원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무역전쟁 장기화에 대비하는 한편, 그로 인한 농민층 지지기반 이탈을 우려해 서둘러 추가 지원책 의지를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농가에 120억 달러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추가로 16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중국은 전날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자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산 농산물 구매 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지난해부터 미국산 농산물을 협상의 지렛대(레버리지)로 활용해왔다.

미국 CNBC 방송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중단하면 미국 농민은 가장 큰 고객 중 하나를 잃는 것이라며 이는 이미 힘든 상황에 더 파괴적인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미주리대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이 본격화하기 전인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미국산 대두를 2천770만t 구매했으나, 작년 9월~올해 5월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량은 700만t으로 70% 넘게 줄었다.

중국이 농산물을 협상카드로 이용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인 농민층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

내년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당락을 가른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농민층의 지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글로벌 자기자본 투자사 사파나드의 최고투자책임자(CIO) 존 러틀리지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협상카드로 정한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대에 잇단 '백색테러'

中 '푸젠방' 폭행 용의자 꼽혀
경찰 늑장출동 부실 대응 논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백색테러'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홍콩 명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빈과일보 등이 7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송환법에 반대하는 총파업과 홍콩 전역의 동시 다발 시위가 벌어졌던 지난 5일 밤 홍콩 췬안 지역에서는 흰색 혹은 남색 옷을 입은 30~40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시위대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밤 9시부터 11시 사이에 걸쳐 췬안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칼과 흉기를 사용해 검은 옷을 입은 송환법 반대 시위대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이들이 휘두른 칼에 한 시위 참가자가 손과 다리에 뼈가 드러날 정도의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다른 시위 참가자는 각목 등에 맞아 머리를 다쳤다. 명치를 발로 걷어차여 실신한 시위 참가자도 있었다.

지역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출동했으며 출동한 후에도 폭행 용의자 체포보다는 송환법 반대 시위대 해산에만 신경을 썼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한 주민이 폭행 가해자들이 도망친 방향을 가리켰지만, 경찰은 되레 다른 방향으로 달려갔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백색테러' 사건과 매우 흡사해 제2의 백색테러 사건이라고 할 만하다.

시위대를 향한 무차별 공격은 홍콩 노스포인트 지역에서도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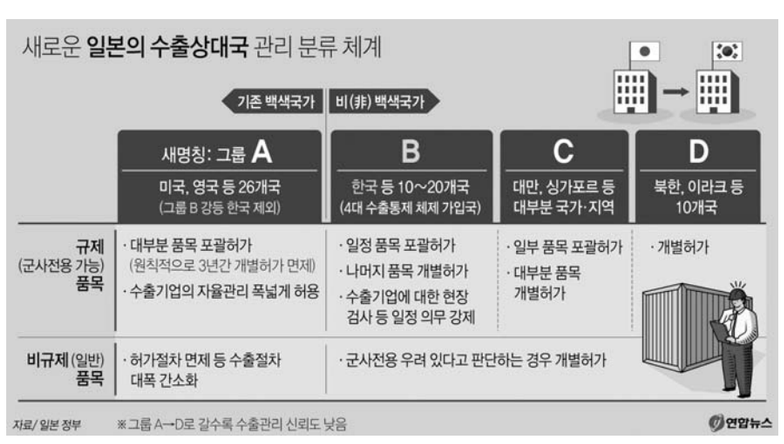
5일 저녁 노스포인트 지역에서는 10여 명의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각목 등으로 시위대를 마구 폭행하면서 공격했다. 하지만 곧바로 수적으로 우세한 시위대에 밀려 '홍콩제일청년회의단' 간판을 단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시위대가 건물 유리창을 깨자 이들은 식칼 등을 휘두르며 저항했고, 실랑이는 15분가량 이어지다가 끝났다.

전날에는 이들 백색테러 용의자가 푸젠(福建)성 출신의 홍콩인을 뜻하는 '푸젠방'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이들이 다시 시위대와 충돌할 것이라는 소문에 노스포인트 지역 상가와 은행이 문을 닫기도 했다. /연합뉴스

"日 '백색국가' 제외, 한국기업 영향 임시적…상황 견뎌낼 것"

中매체 보도 "美 중재않고 관망"



일본이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 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가운데 중국 주요 매체들이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하며 한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영 중앙(CC)TV는 이날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한국 각계가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는 강렬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CCTV는 "일본의 이번 조치 이전의 화이트리스트에는 27개국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첫 번째 국가가 됐다"고 덧붙였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인 해외망도 "일본이 정식으로 개정안을 공포함으로써 오는 28일부터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한국의 대일 수출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앞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미일 삼국의 외교장관이 이와 관련해 논의했지만, 미국은 중재에 나서지 않고 사태를 관망했다"고 지적했다.

평파이도 NHK 등 일본 매체를 인용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정식으로 공포됐다고 보도했다.

평파이는 이어 이번 조치로 일본의 기업들이 한국에 제품을 수출할 때 "일본 산업성이 해당 상품이 무기 제작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면 관련 검사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신문망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해 보도했다.

중국신문망은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한국기업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대부분 상황을 한국이 견뎌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매체는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기업이 재료 공급에 차질을 빚기는 하겠지만, 이와 관련한 영향은 임시적이고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FDA "세계 최고가 '졸겐스마' 실험데이터 조작"

"승인하고 한 달 지나서 알아"

세계 최고가 의약품인 척수성 근육 위축증(SMA) 치료제 '졸겐스마'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기 전 동물실험 관련 데이터 조작이 있었다고 FDA가 6일(현지시간) 밝혔다.

스위스계 제약사 노바티스가 개발한 졸겐스마는 지난 5월 FDA 승인을 받았으며, 미국 내 판매가는 210만 달러(약 25억원)로 단일 치료 약품으로는 세계 최고가다.

FDA는 이날 성명에서 "졸겐스마를 승인한 지 한 달 뒤에 동물실험 관련 데이터 조작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졸겐스마를 제조하는 노바티스 계열사 아벡시스(AveXis)가 데이터 조작 사실을 알고서도 졸겐스마 승인 이후에야 FDA에 통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전했다.

노바티스는 성명을 내고 데이터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문제의 데이터는 초기 단계의 시험제품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 출시되는 상용제품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FDA 생물학제품센터 피터 마크스 소장은 "모든 권한을 동원해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포함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FDA는 그러나 데이터 조작에도 불구하고 졸겐스마 판매를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졸겐스마는 1회 투약으로 SMA를 치료하는 치료제이다. SMA는 유전적 원인에 따른 근육 파괴 질환으로 영유아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0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9타경 317	1	북구 하서로71, 101동 5층 501호 [운암동, 유탑하늘세움아파트] 84.9952㎡	아파트	196,000,000 196,000,000	
2019타경 4159	1	광산구 월곡산정로96-21, 205동 5층 502호 [월곡동,한성아파트] 84.24㎡	아파트	149,000,000 149,000,000	
2019타경 5350	1	남구 주월동 423-2 금당아파트 2층 1호 44.535㎡	아파트	56,600,000 56,600,000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9타경 4258	1	나주시 이창택지길6-16, 엘동 4층 402호 [이창동,골든빌] 72.3㎡	다세대	76,000,000 76,000,000	
[대지/임야/전답]					
2019타경 5510	1	영광군 군남면 대덕리 산127 25983㎡	임야	33,777,900 33,777,900	
	2	동소 산191-2 20331㎡	임야	28,463,400 28,463,400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9타경 63813	1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 820 1805㎡[현황휴경중인답,버드나무포함매각]	답	32,490,000 32,49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9타경 3859	1	서구 상무중앙로78번길10, 1층 104호 137.16㎡	근린시설	1,100,000,000 1,100,000,000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9. 8. 22. [목]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9. 8. 29. [목]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입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서 전자통신매체나 비치된 출력물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9. 8. 8.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성관